

전북 국회의원들 힘 모아 제몫 찾아야

전북이 허망함으로 가득차 있다. 정치 경제 가릴 것 없이 뭐 하나 풀릴 기미와 기달만한 언덕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철저히 인사에서 배제됐었고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 받아왔다.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택으로 이제 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했지만 그분이다. 지금 전북은 지역 인배라는 허울 속에 심각한 위기 블랙홀에 빠져 있다. /편집자주



지난 7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기업협의회(회장 김기열)는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일부터 5대 광역본부에 이어 추가로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업무를 재개한 것과 달리 전북본부를 대상에서 배제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심층진단 지역 안배도 차별받는 전북

▶ 관련기사 2면

전북은 과거 농도(農道)로서 이미지가 강했다. 지금은 기금운용본부 유치,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북은 호남 내부적으로 정치나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 약화로 쇠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전북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배제, 군산항 환적자 동차화물 불허, 서남대 의대 폐과 등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른 곧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와 함께 전북이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우선순위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다양한 원인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정치변방으로 밀려난 정치력 부재를 꼽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북권을 대표할 간판급 인물 부재와 정치 역량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광주 전남에 비해 정치적 역량·영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 전북 현안들이 제몫을

받고 추진이 미미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예컨대 서남대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 대표의 목포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순천대 의대 유치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전북 몫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호남 종속변수로서 드러날 역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될 정도다. 특히 이대로 가면 전북 정치, 경제가 호남정치 논리에 휘둘러 제몫을 못 찾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치·경제 등 쇠락 위기 정치력 부재가 큰 원인 광주전남보다 역량 부족 도내 현안들 추진 '미미' 정파 초월한 협력 등 절실

이에 지역의 입장을 반영할 통로 확보와 함께 지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중앙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거대 정치지형의 굴레 속에서 수적으로 절대 열세의 한계를 안고 있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광영 기자

영호남 화합·균형발전 국가철도망 구축한다

국토부, 새만금 신항~대야·전주~김천 등 철도건설 사업 반영...도, 예타 조기 실시키로

호남과 영남 간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동맥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7일 새만금 신항~대야간, 전주~김천간 철도건설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16~2025)'을 고시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대야간 철도건설은 신규사업으로, 전주~김천 간 철도는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추가 검토 대상사업에 대해 필요시 계획기간 내 착수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전북과 경북을 잇는 황금하리 철도 구축 계획이 사실상 수립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되고 동·서 방향의 교통망은 매우 취약해 호남과 영남 간 교류에 불편함이 있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양 지역 주민들은 '무주~대야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간 철도'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서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사업 등이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 추진과 새만금 신항만 착수에 따른 신항만과 내륙 동·서간을 연결하는 물류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철도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전북과 경북이 양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 귀 기울여 지난해 11월 25일 철도 건설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동·서 화합의 염원을 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영수 기자

앞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철도건설이 착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신항~대야간 예타조사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대야 간에 이어 전주~김천간 철도 추가검토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전환돼 2018년에는 예타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대야 및 전주~김천 간 철도가 건설되면 서해안권과 동해안권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새만금 신항만이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로의 자리매김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영국 유럽연합 탈퇴 대응 금융당국, 비상체계 가동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금융당국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꾸려 국내의 금융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대응팀은 주식시장 급락, 환율 급등, 외국인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영수 기자

▶ 매일 INDEX

3면 불붙은 아연의 대권경쟁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난 23일 당권 대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손학규 전 고문도 정계복귀 선언 압박을 알리면서 당내 대권주자간 경쟁에 일찍 불이 붙는 모양새다.

4면 도, 생태관광지 조성 청사진 발표
전북형 생태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가 생태관광 1번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전북도는 군산시 청암산 에코라운드 생태관광지를 방문해 생태탐방을 가졌다.

5면 서남대 정상화계획서 2대 제출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주예수병원 컨소시엄과 명지의료재단 등 2곳의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이사회는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았다.

8면 군산경제 위기, 기회로 삼자
군산지역 경제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회복이 엇갈리는 등 기업 의존도가 높아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현 시점에 관광사업으로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